

“압해~김대중대교 구간 도로 확장해주오”

“2차선 도로 내년 새천년대교 개통 교통수요 감당 못해”

내달 개량공사 발주 앞두고 신안 중부권 주민들 요구

신안 압해대교~김대중대교 간 도로 공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확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다음달 국도 77호선 압해읍 신장리~복룡리 간(10.64km) 도로 시설 개량공

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군도(郡道)로 이용되다 지난 2001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없이 국도(國道)로 승격된 도로다. 국도 77호선 중 유일한 2차선인데다,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지역민들 설명이다.

익산청은 그러나 400여 억원을 투입하면서도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 대신, 2차

선을 유지하면서 굴곡 구간을 완만하게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은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지 않은 공사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연도교로 연결된 압해~팔금, 안좌~팔금, 자은~압해 등에도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현재 새천년대교 개통전이지만 중부권으로 가는 철부선이 출항하는 송공항 인접도로는 휴가철과 명절때만 되면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압해읍과 압해·안좌·팔금 등 중부권 주민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결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익산청에 제출하는 등 ‘압해대교~김대중대교 구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근 추진위원장은 “팔금 등 다이아몬드권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 대파 등 농작물 이동 증가로 인한 운송로 확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라도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 갯벌 낙지 국가어업유산으로

郡 이달중 지정 용역 발주

내년 4월까지 문화유산 조사

무안군이 갯벌낙지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의 갯벌낙지어업을 해양수산부의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기로 했다.

군은 이달 중 용역을 발주, 내년 4월까지 무안 갯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유·무형 문화유산 조사를 통해 낙지어업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지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의미, 활용계획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무안군은 가래나 햇불 등을 활용한 갯벌낙지어업이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역 고유한 브랜드 가치 향상 뿐 아니라 주민 소득과 연계, 관광 산업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햇낙지’(해낙지·햇불낙지) 잡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명맥을 이어온 방식. 햇불을 만든 뒤 간조 때 바다로 나갔다가, 밀물을 따라 갯벌을 빠져나오면서 새 물을 먹여 뱀 밖으로 나오는 낙지를 손으로 ‘줍는’ 전통어법.

가래낙지는 게나 조개를 잡아 먹고난 뒤 껍데기와 노폐물을 버리는 ‘브릿’을 찾아낸 뒤 반대편 구멍을 가래로 파내 잡는 방식이다.

무안에서는 전체 1988 어가 중 792개 어가(39.8%)가 낙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류별로는 주낙(340어가), 맨손(322어가), 통발(17어가), 햇불(113어가) 등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는 전통 어업 자원을 발굴, 보전·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5년 도입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신안군 지주식 명품 햇김 생산 시작

신안수협 위판장 첫 수매...작황 좋아 소득 증대 기대

신안군의 겨울철 수산물 별미인 돌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19일부터 입자면해역에서 처음으로 돌김이 생산됐다.

신안군은 이번 햇김을 시작으로 압해읍 신안수협 송공 불김 위판장에서 첫 김 수매에 들어가는 등 햇김 생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산 첫 햇김은 신안군 입자면 김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돌김으로 곱장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장김’으로 불린다.

맛과 향이 만능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예년보다 작황상 태도 좋아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속당 도매가격도 1만6000원 이상 예상돼 김 양식어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안군은 전망했다.

신안군은 지주식 ‘신안 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제17호로 등록하는 한편,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거치는 등 명품브랜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안군은 아울러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육상채도 및 냉동망, 김 활성처리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마른김 가공용



신안에서 햇김 생산이 본격화됐다. 김 채취에 나선 어민들. <신안군 제공>

수정수시설 등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 김 양식어장은 6764ha로

지난해에는 490여가가 참여, 4만7855t을 생산, 67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국화꽃 두른 평화의 소녀상 눈길

함평 국향대전 행사장 설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평 국향대전 행사장에 마련된 국화꽃을 두른 ‘평화의 소녀상(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국화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형상화해 전시하고 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측은 국향대전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한 번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녀상을 만들었다.

지역민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표명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 청년정책 발굴 나선다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

함평군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청년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함평’을 내걸고 내년 주요 사업으로 청년층의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참여시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3만4290명 중 청년(19~49세) 인구는 1만111명(29.5%)로, 이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함평군 판단이다.

함평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함평군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

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독창성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또 청년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청년 정책 발굴 보고회를 거쳐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기로 했다.

청년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발전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3~4월 공모해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11월 청년들의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청년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영광·순천시 ‘도시재생 뉴딜’ 신청

전남 자치단체들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선정된 자치단체는 국비로 도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반면, 탈락할 경우 도심 활성화가 더디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을 성남리 옛 무안 전통시장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우리동네 살리기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50억의 국비 지원을 받아 3년 간 주민들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쇠락한 지역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영광군도 남천·도동지구 일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신청했다. 영광군은 국비100억원 등 211억원을 들여 남천리 골목 재생, 남천리~우산공

원 둘레길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펼치는 ‘일반 근린형’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순천도 ▲장천·남제동을 중심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등을 조성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저천동을 지역공동체 거점을 만들고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정부에 신청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개 분야 중 중심시가지·경제기반형 부문에서 15곳을 선정하고 전남도는 국토부 위임을 받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부문에서 3곳을 선정, 지원한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순천=김은종기자 ejkim@

<h3>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 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p> <p>직매 010-6670-9800</p>	<h3>수기동 상가 매매</h3> <p>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p> <p>직매 010-6670-9800</p>	<h3>경매 (주)대신경매</h3> <p>북구 용전동 (병동참고) 토지 700평 건물 500평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4천</p> <p>1) 서구 풍암동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50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p> <p>2)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11평 건물 18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2억2천</p> <p>3) 북구 문충동 모야A,P,T (33평) 감정가 1억9천5백 → 최저가 1억3천6백</p> <p>4) 광산구 신창동 부영A,P,T (33평) 감정가 2억3백 → 최저가 1억4천2백</p> <p>5)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9층중 2층상가) 토지 23평 전용 86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8천</p> <p>6) 장성군 북일면 (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재활 요양병원 감정가 32억 → 최저가 23억</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경매교육</h3>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	--	---	--